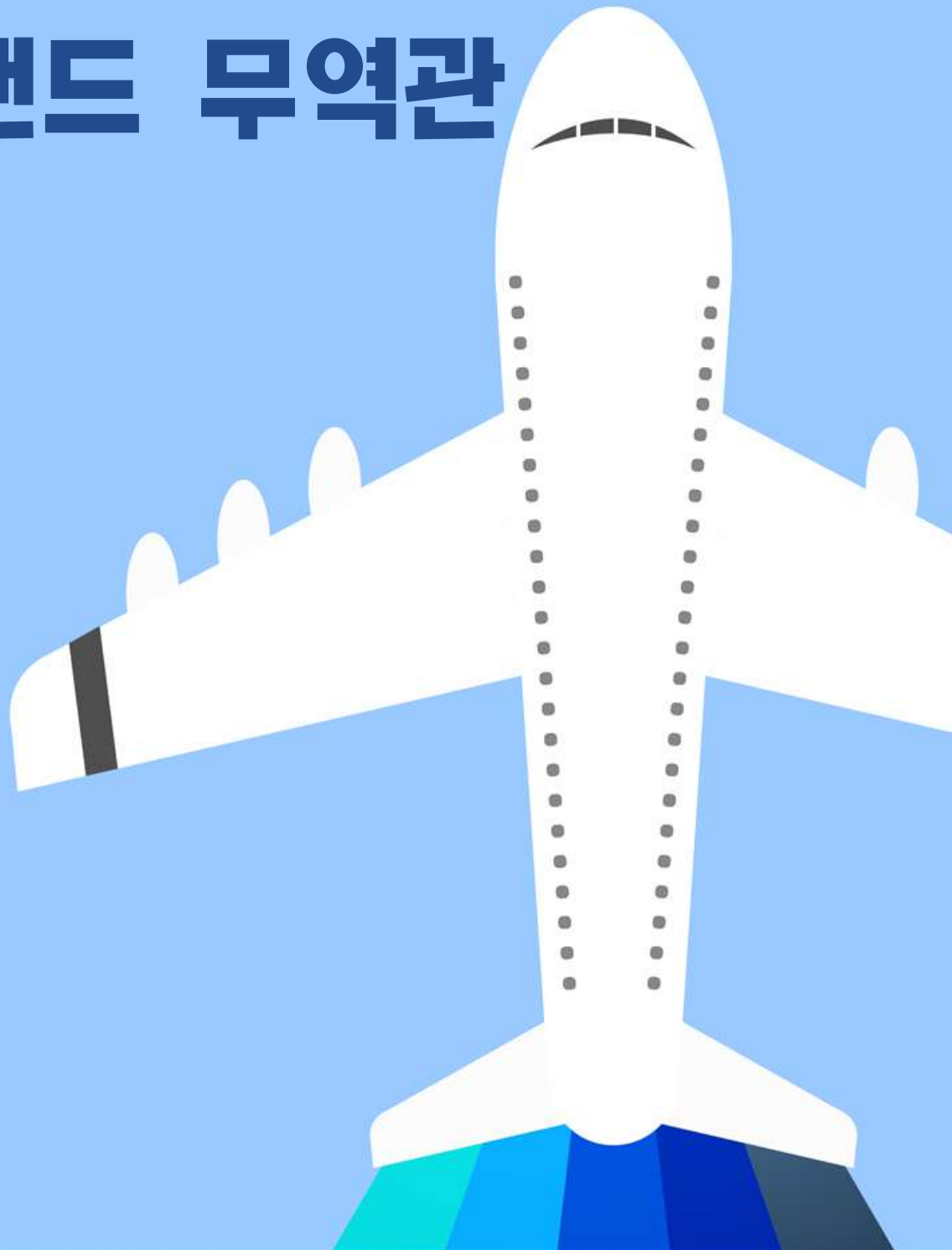


2022 해외출장 가이드

뉴질랜드 오클랜드 무역관

AUCKLAND



목 차

I. 국가개요	1
II. 뉴질랜드 경제 동향	4
III. 한-뉴 교류 및 협력 관계	12
IV. 체재 안내 정보	14

I. 국가개요

1. 국가 개황

국 가 명	뉴질랜드 (New Zealand)
위 치	남반구 남서 태평양 (호주대륙에서 동남쪽으로 약 2,000km)
면 적	269,036 km ² (남한의 2.7배)
기 후	온난해양성 기후(12~2월 평균 20~25도, 6~8월 평균 12~16도)
시 차	한국 기준 3시간 빠름 (일광절약제 기간 동안 4시간 빠름) 일광절약제: 9월 마지막주 일요일~4월 첫주 일요일
수 도	웰링턴(Wellington)
인 구	512만명 (2022년 5월, 통계청 추정치)
주요도시 (인구)	오클랜드 (153만), 웰링턴 (45만, 수도), 크라이스트처치(37만), 해밀턴 (15만)
민 족	유럽인(70%), 마오리(16%), 아시아인(15), 태평양 도서국(8%), 기타(3%)
언 어	영어, 마오리어
종 교	기독교(37%), 힌두(2%), 이슬람(1%), 기타 여러 종교 및 무교
건 국 일	1840.2.6 (영국 총독과 마오리 대표 간 Waitangi 조약 체결)
정부형태	의원 내각제 (3년마다 총선실시)
국가원수	Queen Elizabeth II 영국 여왕
수 상	Jacinda Ardern (노동당, 2017년 10월 취임, 2020 총선 연임)
GDP	US\$ 2,521억 (2021년)
실질경제 성장률	-2.9%(2020) / 6.1%(2021)
1인당GDP	US\$ 44,572 (2020년) / US\$ 48,629 (2021년)
실 업 율	4.9% (2020년) / 3.8% (2021년)
물가상승률	1.4% (2020년) / 3.9% (2021년)
화폐 단위	NZ Dollar(NZ\$)
환 율	US\$ 0.64/NZ\$1.00 (2022년 5월 18일)
산업 구조	1차산업 7%, 2차산업 19%, 3차산업 66%, 기타 8%
교역 규모	수출: US\$ 389억 (2020) / US\$ 421억 (2021) 수입: US\$ 353억 (2020) / US\$ 443억 (2021)
대한 교역 규모	○ (대한)수입(2020년) : US\$ 19억 - 주요품목 : 석유제품, 선박, 자동차 및 부품, 의약품, 건설중장비 등 ○ (대한)수출(2020년) : US\$ 15억 - 주요품목 : 원목, 낙농품, 육류, 알루미늄 등

2. 뉴질랜드 역사

시기	주요 내용
1642	네덜란드인인 아벨 타스만이 최초로 발견
1769	영국인 제임스 쿡 선장의 뉴질랜드 측량 및 유럽인 이주 시작
1840.1	William Hobson 초대 총독, Bay of Islands에 정착
1840.2	Hobson 총독과 마오리족 대표 간에 Waitangi 조약 체결
1860-70	토지문제로 인한 마오리족과의 분쟁
1893	여성참정권 세계 최초 인정
1907.9	영국의 자치령(Dominion)
1912	여성 피선거권 부여
1950.6	한국전쟁 참전
1964	월남 파병
1997.7	Mike Moore 전총리 WTO 사무총장 선출
1999.9	제 7차 APEC 정상회의 개최 (오클랜드)
2001.3	북한과 수교
2011.11	국민당 총선 승리 (John Key 총리 연임)
2013.3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 통과
2014.9	국민당 총선 승리 (John Key 총리 3연임)
2015.3	한-뉴 FTA 정식 서명
2016.12	John Key 총리 사임 선언, Bill English 신임 총리 취임
2017.10	노동당 총선 승리, Jacinda Ardern 신임 총리 취임
2020.10	노동당 총선 승리, Jacinda Ardern 신임 총리 연임

3. 뉴질랜드 정치제도

□ 개요

- 정치제도 : 입헌군주국
- 국가원수 : Elizabeth II
- 총독 : Dame Cindy Kiro (임기 5년)
- 총리 : Jacinda Ardern (제40대 총리 취임)
- 의회 : 양원제로 출원하였으나 1951년 이후 단원제로 변경, 임기 3년

□ 주요정당

- 의석 확보 (5) :
Labour Party, National Party, Green Party, ACT, Maori Party
- 의석 미확보(7):
Aotearoa Legalise Cannabis Party, New Conservative, Mana Party, NZ First Party, New Zealand Democratic Party for Social Credit, New Zealand Outdoors Party, The Opportunities Party (TOP)

□ 총의석수

번호	정당(의석)	로고	당수	참고사항
1	노동당(65) Labour party		Jacinda Ardern	1916년 창당, 현 집권여당. 중도좌파 성향으로 좌파진영 대표
2	국민당(33) National party		Simon Bridges	1909년 창당, 중도우파 성향으로 우파진영 대표. 이민자들에게 친화적임
3	녹색당 (10) Green party		James Shaw, Marama Davidson	1990년 창당, 환경보호 개발 반대 등 환경론적 기반. 진보적인 사회 정책 추진
4	마오리당(2) Green party		JohnTamihere	2004년 노동당에서 분리되어 창당 세계개편 추진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조
5	행동당 (10) ACT		David Seymour	1994년 창당, 민생치안, 세계개편 등을 추천하며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 증진을 목표

II. 뉴질랜드 경제 동향

1. 주요 경제 지표 및 경제 전망

□ 최근 뉴질랜드 경제동향

- 국경개방과 GDP 플러스 성장 기대
 - 2022년 초 오미كرون 변이의 확산세 속에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경보 시스템을 신호등 시스템으로(경중에 따라 빨강, 노랑, 초록) 전환
 - 정부는 국경을 2022년 5월부터 다시 열고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신호탄으로 기대

- 실업률
 - 뉴질랜드 통계청의 발표(2022. 5월 현재 최신)에 따르면 2021년 4분기 실업률은 3.8%를 기록
 - 국경개방으로 워킹홀리데이 등 외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나 아직까지 현지 노동시장은 타이트하고 인력수요가 많은 상황

- 물가 상승률
 - 뉴질랜드 통계청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은 2022년 1분기에 6.9%로 5.9%이었던 전 분기보다 높아진 수치를 나타냄.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분쟁으로 인해 식품 가격의 상승과 국제 유가의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

- 현금 이자율 변화
 - 2021년 10월에 7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 퍼센트포인트 인상한 정부는 11월에도 0.25 퍼센트포인트를 인상하며 0.75%로 2021년 기준금리를 마감.
 - 2022년에도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집값 상승세 등을 고려해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하며 현재(2022년 5월 최신) 1.50%를 유지함.

□ 향후 경제 전망

- 2022년 경제성장률 3.8% 전망
 - OECD는 2022년 뉴질랜드 경제성장률을 3.8%로 전망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재무부(Ministry of treasury) 역시 경제성장 예측 보고서를 통해 올해도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 2022년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불확실성 위험이 연내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분쟁은 또 하나의 불확실성으로 작용
 - 5월 국경개방 시행 등 기존 시스템보다 완화된 코로나19 경보시스템으로의 전환과 함께 점차 내수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 수요의 증가, 신규 주택건설 호황 등도 경기진작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

- 타이트한 노동시장과 높은 인플레이션
 - 뉴질랜드 재무부의 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률은 올해 상반기 계속 감소해 3%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동 보고서는 현지 노동시장은 놀라운 회복세를 보였지만 올해 3분기에 들어서면서 실업률은 다시 4.1%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장기적으로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계 소비와 및 기업 활동을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2022년 낙농업 등 1차산업 수출성장 주도
 - 1차산업(Primary Industry)은 뉴질랜드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주요한 산업으로 내수와 수출에 고른 기여도를 나타내고 있음
 - 1차 산업부의 2022 산업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식품 및 섬유 관련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해당분야 수출은 2022년 상반기(6월 말 기준)에 전년 대비 6% 증가한 508억 뉴질랜드달러의 수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또한 낙농, 육류, 원예, 임업 등의 수출 실적도 호조를 보이며 수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

2. 뉴질랜드 교역현황

□ 뉴질랜드 주요 수출입 대상국

- 세계 경기 불확실성 지속에 교역량 감소
 - '21년 전체 교역액은 914억 미국달러로 '21년 대비 20% 증가
 - 한국은 중국, 호주, 미국, 일본에 이어 對뉴질랜드 수출 5위 교역국
 - 상위 10개국에 수출입 교역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對중국 수출액은 140억 미국달러로 전체 뉴질랜드 수출 교역액의 31%를 차지함.

뉴질랜드의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 US\$ 백만, %)

구분	2018	2019	2020	2021
수출 (증감률)	39,838 (4.63)	39,553 (-0.99)	38,915 (-1.52)	44,757 (15.01)
수입 (증감률)	41,840 (9.12)	42,051 (1.00)	37,147 (-12.31)	46,715 (25.75)
교역량 (증감률)	81,678 (6.88)	81,604 (-0.99)	76,062 (-7.10)	91,472 (20.26)
무역수지	-2,002	-2,498	1,768	-1,958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뉴질랜드의 주요 수출국가 (2021년 12월 누적)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수출금액	비중
1	중국	14,169	31%
2	호주	5,561	12%
3	미국	4,707	10%
4	일본	2,547	5%
5	대한민국	1,415	3%
6	영국	992	2%
7	대만	962	2%
8	인도네시아	917	2%
9	싱가포르	911	2%
10	홍콩	849	1%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뉴질랜드의 주요 수입국가 (2021년 12월 누적)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수입금액	비중
1	중국	10,907	23%
2	호주	5,383	11%
3	미국	4,008	8%
4	일본	3,004	6%
5	독일	2,284	4%
6	태국	2,144	4%
7	한국	2,127	4%
8	아랍 에미리트	1,737	3%
9	말레이시아	1,207	2%
10	싱가포르	1,123	2%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 최근 수출입 동향

○ 수출동향

- 2022.3월 기준 총 수출액은 113억 미국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수출액인 103억 미국달러 대비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가장 큰 교역국인 對 중국 수출액은 32억 미국달러로 전년 동기 수출액인 33억 미국달러 대비 1% 감소했으며, 2위 교역국인 호주의 경우 12억 미국달러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규모의 교역량을 나타냄.
- 동기간 주요 수출품목인 유제품(Dairy)은 35억 미국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14% 증가했으며, 목재수출은 동기간 7억 미국달러를 기록해 9억 미국달러를 수출했던 전년 대비 교역량이 12% 감소함. 그러나 주요 수출국 중 중국(-21%)을 제외한 한국(33%), 일본(13%), 미국(7%)은 전년 대비 증가한 실적

○ 수입동향

- 2022.3월 기준 전체 수입액은 118억 미국달러로 전년 수입액인 100억 미국달러 대비 18% 증가했으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도 28억 미국 달러로 24억 미국달러를 기록했던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함.
- 주요 수입 품목인 석유제품의 수입액은 11억 미국달러로 전년 동기 7억 미국 달러 대비 교역액이 54% 증가했으며, 전자기기 수입액은 10억 미국달러로 전년 동기 93억 미국달러 대비 11% 증가함.

□ 對韓 교역동향

○ ('22.3 누적기준) 최근동향

- 한국의 對 뉴질랜드 수출은 6.4억 미국달러이고 수입은 4.1억 미국달러로 2.3억 미국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 (수출) 경유, 휘발유등 정제유의 수출비중이 높으며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해당 제품 수출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수입) 뉴질랜드산 쇠고기, 치즈, 버터 등 육류 및 낙농품의 수입이 0.8억 미국달러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목이 0.5억 미국달러를 기록함.

한국의 對뉴질랜드 주요 수출품목

(단위: US\$ 백만, %)

순위	품목명	2021		2022.03(누적)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924	31.5	645	50.9
1	경유	372	56.0	182	174.4
2	휘발유	429	77.0	158	55.0
3	승용차	268	39.5	47	-38.3
4	의약품	5	-7.3	22	1,540.4
5	제트유및등유	16	-35.7	22	191.1
6	도금강판	37	216.3	20	184.7
7	건설중장비	68	63.5	15	-8.6
8	아연도강판	37	135.2	14	215.3
9	합성수지	52	35.4	13	-9.1
10	전기자동차	72	802.3	10	-1.4

한국의 對뉴질랜드 주요 수입품목

순위	품목명	2021		2022.03(누적)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541	30.4	419	41.9
1	낙농품	260	13.4	80	11.1
2	알루미늄괴및스크랩	205	61.8	59	78.5
3	원목	256	28.6	55	10.5
4	가축육류	141	42.7	50	32.7
5	단백질류	40	13.5	25	134.6
6	유연탄	46	111.4	19	214.2
7	원유	12	0.0	17	0.0
8	동물성한약재	32	3.5	12	31.5
9	펄프	62	44.6	11	12.4
10	고철	24	270.2	11	40.7

자료원 : 무역협회 수출통계

3. 뉴질랜드 진출현황

□ 우리 기업 투자 진출 동향

- 조림사업과 관련한 우리기업 직접 투자사례
 -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한국에서의 목재투자사업과 달리 별도의 토지구매 없이 벌목권(Cutting Right) 구매를 통해 원목 생산가능
 - 한솔뉴질랜드, 선창산업이 한국기업으로 조림지 투자 사업을 진행 중임
- 청정지역 뉴질랜드의 장점을 활용한 가공식품 생산 투자
 - 청정지역인 뉴질랜드는 1차 산업이 발달해 과일, 채소, 유제품, 육류 등 우수한 품질의 식품원료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나라임.
 - (주)오뚜기는 1995년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식품제조공장 건설을 추진해 오클랜드의 타카니니(Takanini) 지역에 부지를 확보하고 1997년부터 공장 가동
 - 라면스프, 사골곰탕, 설령탕, 꼬리곰탕, 육개장 등에 사용되는 사골 엑기스를 제조해 한국에 공급하고 다양한 소스류도 생산해 현지에도 유통함.

□ 경쟁국 동향 (중국, 일본)

경쟁국 주요기업 뉴질랜드 투자진출 현황

(단위 : NZ\$ 억)

기업	진출현황	투자액
Shanghai Pengxin(중)	뉴질랜드내 12,000ha 규모 낙농장 인수	3
Haier(중)	뉴질랜드 유일의 가전사 Fisher & Paykel 인수	7
Yili Industrial(중)	뉴질랜드 남섬 티마루지역 대형 유제품 공장 설립	4
Fu Wah(중)	오클랜드 Park Hyatt 호텔 신축	2
Asahi(일)	음료제조사 Flavoured Beverages Group 인수	15
	음료제조사 Charle's Group 인수	13
Suntory(일)	음료제조사 Danone Holdings 인수	기밀
Japan Post(일)	호주-뉴질랜드 물류기업 Toll Holdings 인수	70
SMA(중)	뉴 최대 육류기업 SilverFernFamrs지분 50% 인수	3

자료원 : 무역관 자체조사

- OECD 국가 중 최초로 중국과 양자 FTA 발효(2008)
 - 서방국가 중 최초로 중국과 일대일로 협력의서에 서명하고 뉴질랜드의 과학 기술, 바이오의약, 농업등 양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 연구협력을 지원
 - 최근 낙농업, 유제품공장과 같은 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와 조림지 조성
 - 농후(Nongfu)사는 베이오브플랜티에 생수공장을 건설함.

- CPTPP 및 RCEP 등 경제동반자 협정 발효
 - 뉴질랜드는 2019년부터 시작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경제협정 발효로 일본시장개방개방에 기대 높음
 - 2022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도 참여해 중국, 일본 외에 아세안국가와도 경제협력 전망
 -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연구, 스포츠 등 사회 분야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지 물류 및 대형 식음료업체 인수를 통해 투자 진출함

4. 뉴질랜드 시장특성

□ 작지만 강한 핵심 산업 육성에 선택과 집중

- 내수시장 성장의 한계와 취약한 제조업
 - 인구 510만의 작은 내수시장, 제조업 성장을 뒷받침할 선순환 구조 만들기 어려워 전체 GDP의 66%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대비 제조업 취약
 - 1차 산업이 만들어내는 식음료 관련 제품을 제외하면 소비재, 가전제품, 기계장치 등 대부분의 공산품은 수입의존도 높음.
- 뉴질랜드 미래를 선도하는 1차산업
 - 낙농, 화훼, 축산 등의 1차 산업이 발달해 우수한 식품원료와 가공품이 세계 각지로 수출되며 정부 차원의 혁신 기술 육성과 시장 성장 기대
 - 임업 관련 목재 수출과 양식업의 성장 속에 수산가공품의 생산도 수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여러 나라로의 시장 확대 전망
- 스마트팜 등 농업관련 기술 혁신 추진
 - 현지 낙농·축산업은 내수경기와 수출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산업으로 1만2천여 낙농가(Dairy farm)가 연간 200억 리터의 우유를 생산
 - 우유 생산과 관련된 착유, 수율관리, 사료공급자동화 시스템 등 대형 낙농가 및 축산가를 중심으로 품질과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어그테크 수요 증가
 - 오클랜드대학교를 비롯한 다수 종합대학교의 산학연 연구소와 현지 스마트팜 기업들은 꾸준한 기술개발과 혁신 주도
 - 임업 관련 목재 수출과 양식업의 성장 속에 수산가공품의 생산도 수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여러 나라로의 시장 확대 전망

□ 기업 친화 정책

- 기업설립 및 운영용이
 - 효율성을 중시한 선진화된 기업설립 등록 절차 운영
 - 2020 세계은행에서 선정한 기업하기 쉬운 국가 1위 선정
 - 단일 법인세(28%)를 부과하며 간편한 세제 기준 갖춤
 - 캘러헌이노베이션(Callaghan Innovation) 센터를 통한 스타트업 육성지원과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금을 위한 세금감면혜택 운영

- 정부 디지털기술의 산업계 확산 지원
 - 정부는 전체 산업계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 수요와 산업별 구체적인 인력과 기술 섹터를 분류해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경쟁력 확보 추진
 - 정부 주도로 산업계 디지털경제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확보하고 오픈 데이터 정책에 기반한 관련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정부차원에서 산업분야 요소기술을 정의해 구체적인 디지털화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하고, 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등 다양한 산업계 부가가치 창출 기대

Ⅲ. 한-뉴 교류 및 협력 관계

1. 정치 및 외교 관계

□ 한-뉴 정치 및 외교 관계

- 1962년 3월 26일 한국-뉴질랜드 간 국교 수립
- 1973년 10월 1일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개설
- 1978년 6월 21일 한국-뉴질랜드 의원 친선 협회 결성
- 1979년 3월 13일 한국-뉴질랜드 경제인 연합회(KNZBC) 결성

주요 정부인사 상호방문 연혁

방 뉴		방 한	
시기	방문자	시기	방문자
1968년 9월	박정희 대통령	1993년 5월	Jim Bolger 총리
1972년 2월	백두진 국회의장	1996년 5월	Jim Bolger 총리
1977년 8월	정일권 국회의장	1999년 7월	Jenny Shipley 총리
1999년 9월	김대중 대통령	2001년 5월	Helen Clark 총리
2000년 3월	박준규 국회의장	2003년 5월	Helen Clark 총리
2006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2008년 5월	Helen Clark 총리
2009년 3월	이명박 대통령	2010년 5월	John Key 총리
2014년 2월	강창희 국회의장	2012년 3월	John Key 총리
2018년 12월	문재인 대통령	2013년 7월	John Key 총리
		2015년 3월	John Key 총리

2 뉴질랜드 내 한국사회

□ 한국인 이민 사회

○ 초기 이민 사회 형성

- 1960~70년대 원양어선 선원을 중심으로 뉴질랜드 이민 시작됨
- 1990년대 초 뉴질랜드의 이민 문호가 개방되면서 한국인 이민자 유입
- 초기 이민자들은 편의점, 한국 식당, 관광업 등 서비스업에 종사
- 현재 약 3만여 명의 교민이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음.

○ 한국 이민자의 뉴질랜드 사회 진출

- 1990년대 초기 이민자들은 편의점, 식당 등 한정된 산업에 종사하였으나 뉴질랜드 교육을 받은 1.5세대 및 2세대 이민자는 다양한 분야로 진출
- 2014년 한인 최초 여성 국회의원으로 멜리사 리 의원이 당선되었으며 2021년 현재 5선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 여자골프 선수인 리디아고는 여자골프 세계 1위에 오르는 등 뉴질랜드 최고의 스포츠 스타로 대우받고 있음

□ 뉴질랜드 내 한국기업 진출 현황

○ 식품생산 및 수산업

- 오투기 뉴질랜드는 각종 소스 제품과 마요네즈 등을 생산하며 한국으로부터 라면 등을 수입 유통, 뉴질랜드産 소고기를 원료로 한 라면스프, 사골육수 액기스 생산
- 동원수산은 뉴질랜드 남섬의 티마루에 원양어선 사업에 진출

○ 서비스업 및 판매법인

- 항공 및 금융업에 대한항공과 국민은행이, 또한 광고업에는 제일기획 진출
- 삼성전자, LG전자, 기아차가 판매법인을 설립해, 현지 마케팅 활동 중
- 오스템 임플란트가 치과용 의료기기 판매

IV. 체재 안내 정보

1. 오클랜드 주요 관광 명소

사진	주요 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카이 타워(Sky Tow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9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된 스카이 타워는 328m로 남반구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임 - 220m 높이에 있는 스카이 데크(최고층)전망대는 이음새가 없는 유리창을 통해 360도의 오클랜드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곳. 전망대에서 번지점프 같은 액티비티도 즐길 수 있으며 2개의 레스토랑이 있어 오클랜드 시내 야경과 식사를 동시에 즐길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 트리 힐(One Tree Hill) / 콘월공원(Cornwall Pa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 트리 힐을 둘러싼 콘월공원은 캠벨 경이 당시 뉴질랜드를 방문한 콘월 공작 부부를 위해 국가에 헌납한 땅으로, 도심지에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목가적인 분위기임 - 마운트 이든(해발196m)과 마찬가지로 오클랜드 내에 있는 많은 사화산 중의 하나로 해발 183m의 산 꼭대기 전망이 일품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클랜드 도메인(Auckland Doma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내 동쪽에 있는 오클랜드 도메인은 총넓이 34만 km²의 넓은 공원이며, 도메인 안에는 테니스코트, 럭비, 크리켓 경기장 등이 있으며 푸른 잔디로 덮여 있어 주말에는 시민들의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기념 박물관(War Memorial Museu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메인 안쪽 높은 곳에 고딕 양식의 중후한 건물로서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박물관임. 1층은 원주민인 마오리, 2층은 자연 과학에 관한 것들을 모아 전시 중이며 3층은 전쟁에 관한 전시관임

2. 뉴질랜드 주요 관광 명소

사진	주요 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카포) 테카포(Tekapo), 푸카키(Pukaki) 호수 - (테카포 호수) 만년설과 호수, 선한목자의 교회로 유명. 호수는 빙하에 깎인 암석이 녹아 청록빛을 띠 - (푸카키 호수) 마운트 쿡의 설경과 하늘빛과 같은 호수빛이 절경을 이루는 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우포) 호빗 마을(Hobbiton-Matamata) - 호빗 마을은 '반지의 제왕'과 '호빗' 이라는 영화 촬영을 위해 지어진 대규모 세트장임. 원래는 촬영 후에 철거될 예정이었지만 지역주민들의 청원으로 관광지로 바뀜 -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관광할 수 없고 오직 가이드 투어만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우포) 와이토모 동굴(Waitomo) - 동굴 아래 냇물이 흐르고 있어 배를 타고 개똥벌레의 일종인 '글로우웜(Glow Worm)'을 관광할 수 있음 - 어두컴컴한 곳에 가면 개똥벌레가 마치 밤하늘의 은하계를 보는 것과 같이 촘촘히 빛나 신기함을 더해 준다고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토루아) 간혈천 테 푸이아(Te puia) - 지열지대와 마오리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 - 지열지대에서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이(최대 30m) 물을 뿜는 간혈천을 볼 수 있으며, 마오리족의 노래와 춤으로 구성된 콘서트를 볼 수 있음

3. 입국 및 체류 시 유의사항

□ 입국 시 유의 사항

○ 비자 관련

- 입국 후 출국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
- 양국 간 무비자 협정으로 3개월 미만 체류 시 무비자 입국 가능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닫혔던 국경을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시 개방
(2022년 5월)부터 우리나라의 경우 조건 충족 시 입국허용(아래 링크 참조)

<https://www.immigration.govt.nz/about-us/covid-19/border-closures-and-exceptions/border-entry-requirements>

○ ETA 사전신청 제도

-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3개월 무비자 협정과는 별개로 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온라인 여행 허가 프로그램) 발급이 의무화됨.
- 한국 여권을 가지고 관광이나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방문 시 사전에 ETA 신청 필요하며 이때 관광세도 함께 납부가 가능함 (ETA 상세링크 아래)

<https://www.immigration.govt.nz/new-zealand-visas/apply-for-a-visa/about-visa/nzeta>

○ 입국절차 및 주의사항

- 뉴질랜드의 입국심사는 이민심사, 세관신고, 동식물검역의 3단계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며 특히 동식물 검역과 관련한 규정이 매우 까다로움.
- 식품의 경우 세관신고를 하면 검사를 거쳐 반입을 허락하지만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적발될 시 벌금이 부과되고 반입도 불허됨.
- 또한 여권심사의 경우에 있어, 전자여권을 소지한 만 12세 이상인 사람은 e-Gate(자동여권심사)에서 안면인식을 통해 여권심사를 받을 수 있음.

○ 반입 제한 물품

- 농산물, 육류 반입 시 신고 필수이며 미신고 적발 시 NZ \$400 벌금 부과
- 담배 50개비, 위스키 1.15L 3병, 와인 또는 맥주 4.5L가 반입 허용 한도
- *위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입국 시 현지 세관의 가이드를 참조

□ 입국 시 유의 사항

○ 교통사고 유의

- 뉴질랜드는 한국의 운전방향과 반대로 체류기간 중 운전은 가급적 삼가고, 부득이한 경우는 도로횡단, 승하차 시 차량 진행방향에 유의해야 함.

- 인터넷 환경 및 전압
 - 5성급 호텔의 대부분 객실에서는 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 한국에 비해 다소 느린 인터넷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상업/공공 시설내 무료 와이파이 제공도 드물어 관광객용 SIM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
 - 전압은 230V~240V, 50Hz이며 3 PIN 플러그를 사용하고 있음.
- 환전 및 팁 문화
 - 평일 영업시간에는 공항, 은행에서 환전 가능
 - 도심 주요지역에는 사설 환전소 등이 다수 분포해 있으나 별도 수수료 부과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 사전 확인 필수
 - 팁 문화가 일반화 되어 있지 않아 택시, 호텔, 식당에서 팁 지급할 필요 없으나 일부 고급식당에서는 영수증 상 팁 금액을 기재하게끔 유도하는 곳이 있음.

□ 해외피랍 예방요령

- 교통사고 유의
 - 뉴질랜드는 한국
- 신변안전 주의사항
 - 낯선 이들에게 자신의 이름, 숙소, 향후 일정, 동선 등 여행 관련 정보나, 가족관계, 직업 연봉 등 개인정보 유출 금지.
 - 공신력 있는 여행사 현지 잘 아는 사람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 것
 - 주변의 사소한 변화를 경계하며 신변 위협 대상을 항상 고려할 것
 - 현지의 문화를 존중하고 거스르지 않아야 하며 눈에 띄는 복장이나 별난 행동은 삼갈 것
 - 피랍 시 절망하지 않고 구출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음식물을 섭취하며 건강을 유지할 것

해외출장 가이드



www.kotra.or.kr